

1.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종종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교리적 정합성을 쌓아 왔고, 그 근거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의 관심은 논증보다 성경의 역할과 목적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훨씬 더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이 틀리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하는 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으로, 성경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전달하는 책을 넘어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경이 무엇을 증명하는가보다 무엇을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킨다고 말이죠.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점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말이 맞는가"라는 이론적 동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실제로 달라졌는가"라는 실존적 변화에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수십 년 읽고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불의하다면, 그에게 성경은 그저 '종이와 잉크'일 뿐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더 정의로워지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선택할 용기를 얻는다면, 말씀을 통해 일어난 그 삶의 변화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인구의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처럼 한 권으로 묶인 신약 성경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편지 한 구절, 복음서의 이야기 한 대목을 붙잡고 박해와 죽음의 자리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로마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단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정의롭고 선한 삶의 향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치열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성경의 호흡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경 영감의 진짜 증거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품은 사람들이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의를 행할 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생명)이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 _____

-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된 순간'과 '내 삶을 뒤흔들거나 찌르는 듯한 감동을 준 순간'이 있었다면 각각 언제였는지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바울이 말한 성경의 네 가지 역할 중,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하게 작동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주는 교훈, 나의 잘못을 짚어내는 책망, 뻐뚱어진 방향을 틀어주는 바르게 함, 계속 선을 행하도록 단련하는 의로 교육함 중 선택하고 그 이유를 나눠보세요.)

→ _____

- 이번 한 주간,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의를 행하거나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가정, 직장, 대인관계 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며 사랑과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